지허 스님(가운데)이 7월11일 불교학연구회가 개최한 '2004 여름워크숍'에서 '우리차'를 주제로 다담을 나누었다. 오른쪽이 이평래 교수 왼쪽이 이중표 교수.

형식 보다 정성다하면 '다도'

지허 스님의 '우리차 이야기'

7월 11일 불교학연구회 워크숍에서

7월 11일,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가 광주 무각사 불교회관에서 '2004 여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지허 스님(선암사 주지)은 연단 대신 찻상을 앞에 놓고 이중표 교수(전남대)와 이평래 교수(충남대 · 한국불교학회장)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다담(茶談)을 진행했다. 200여명에 이르는 대중들이 스님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여기서 나온 질문과 그에 대한 지허 스님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차 자체가 무아 무념 무상
외형 추구하는 것은 '쇼'
香 · 色 · 味 모두 즐겨야

Q : 선과 차의 관계는 '선다일여(禪茶一如)' '선다일미(禪茶一味)'로 표현되곤 한다. 왜 그런가.

A : 선의 출발은 무아(無我) 무념(無念) 무상(無相)이다. 오직 한국에만 남아있는 간화선은 더욱 그러하다. 차를 기르고, 만들며, 마시는 것은 차 앞에 자아(自我)가 없는 '무아'여야한다. 또한 '무념'으로 일체의 생각을 한 티끌도 없이 비워야하고, 시간과 행위가 없는 '무상'이어야 한다. 이 경계에 이르렀을 때 차와 선이 일치된 선다법이 된다.

특히 참선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번뇌마(煩惱魔), 수마(睡魔), 무기마(無記魔) 등 세 가지 큰 마구니가 따른다. 차를 마시면 이 마구니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

참선하는 스님들은 마음찾는 사람으로 차와 같은 면이 많다. 차나무는 분리식수가 안된다. 스님도 한번 출가하면 더 갈데없이 수행만 한다. 차는 낙엽을 보이지 않는다. 언제 잎이 졌는지 알 수 없다. 스님들도 남기는 것이 없다.

Q : 우리 자생차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A : 자생 차나무는 지표면의 양분에 관계없이 뿌리가 지상 키 크기에 3~4배가량 밑으로 내려가는 직근성이다. 그래서 암반층의 담백한 수분과 무기질을 흡수해서 찻잎을 낸다. 우리 자생 차나무가 아닌 것은 대부분 지표면의 영양분을 좇아 잔뿌리가 많이 생기고 옆으로 퍼진다.

제조방법에 따라 영국은 완전발효, 중국은 반 발효, 일본은 찌는데 반해 우리는 유일하게 덖는다. 차가 가지고 있는 80%의 수분을 여러 차례 덖어서 고유의 차성분을 함축시킨 좋은 차는 덖은 만큼 차를 우려낼 수 있다.

Q : 차 예절이 번잡스러워 차 생활이 일반화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A : 초의 선사는 <다신전>에서 우리 조상들의 다도에 대해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저장할 때 건조하게 하며, 마실 때 청결하게 하면 다도는 완성된다(精燥潔茶道盡矣)'고 했다. 화려하게 차려입거나 화장까지 하고서 복잡한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차의 이름을 빌린 쇼에 불과하다.

실제 우리 차는 형식에 걸림 없이 편하고 자연스럽다. 끓인 물을 그대로 부어 마셔도 된다.

Q : 차는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A : 차의 세 가지 요소는 향(香) 색(色) 미(味)이다. 향색미를 음미하면서 마시면 된다.

좋은 차 일수록 향색미가 우수하다.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편하게 마시면 된다. 이 자리에 많은 대중이 있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고 있다.

차는 찬 성분이 있어 차게 마셔서는 안된다. 좋은 차는 아무리 뜨겁게 마셔도 한여름에 겨드랑이에서 찬바람이 난다고 했다.

또한 차는 습기에 매우 약하다. 변질된 차는 도리어 병이 된다. 차를 내기 전에 변질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먼저 다관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다관이 데워지면 물을 비우고 차를 넣은 뒤 1분가량 지난 후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면 된다. 냄새가 없거나 묵은내가 나면 변질된 것으로 마셔서는 안된다.

흔히 차를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이는 권장할 것이 못된다.

차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정리=이준엽 기자

불교학연구회 회원들이 선암사 칠전선원 달마전 돌우물을 둘러보고 있다.

다도학과 신입생 모집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은 8월 7일 개강하는 다도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다도학과는 50명 정원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한다.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7월 31일까지 동산불교대 사무국으로 입학원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을 접수하면 된다.(02)732-1206

심수연학회 품다회 개최

심수연학회(회장 유건집)는 7월 24~25일 열리는 '2004 광릉수목원 봉선사 연꽃축제' 기간 중 봉선사 경내에서 품다회(들차회)를 개최한다. 25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열리는 이날 품다회에서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차를 선보일 예정이다.(031)527-1951

우리 사찰 차 모임

경북불교대학 불광사 다도회

교육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 키워요

경북불교대 불광사 다도회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 법당에 모여 다도교육을 받는다.

봉사정신 지녀야 입학…중급반 이상이면 정회원
천도재 · 신도간 애경사 등에 차공양 , 연차 일품

7월 9일 금요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 경북불교대학 불광사 법당에는 다도반 4기 회원 10여명이 선생님의 말에 따라 일제히 차완(찻그릇)에 물을 따르고 차선(말차거품을 일게하는 도구)으로 힘차게 '마음 심'자를 그리며 말차거품을 일으킨다. 말차를 우려내는 회원들의 한 동작 한 동작이 한꺼번에 절도있게 어우러져 한 송이 꽃의 너울거림을 연상시킨다.

경북불교대학 불광사 다도회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부처님 전에 차공양을 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뜻있는 동문들에 의해 비롯됐다. 첫 다도수업이 진행된 것이 97년. 지금은 5기생 11명이 초급반 수업을 시작했고, 다도반 수업을 계기로 사범 자격을 갖춘 다도회 회원이 무려 20명이 넘는다. 다도반 수업은 모두 2년 과정으로 초급반 1년은 잎차 우리는 과정을 배우며, 중급 1년은 말차 우리는 과정을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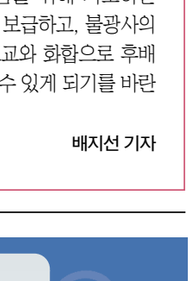
불교대학 재학생 중 봉사정신을 가진 회원들에 한해 다도반 입학이 가능하며, 중급반 이상이어야 정식 다도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초파일, 백중, 불교대학 입학식 등 연중 중요행사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천도재 등의 행사에 참여해 차 공양을 올린다. 신도들의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달려가 차 봉사한다. 매년 초파일마다 대중들에게 우려내는 연차는 다도회의 자랑이다.

"우리는 차를 통한 봉사도 하지만 팔 걷고 설거지도 잘해요. 욱수동 골짜기의 작은 봉사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인터뷰

신정숙 회장
보시 ·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 보급



"직장관계로 다도회 일에 자주 참석하지 못해 늘 회원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는 신정숙 회장(법명 대선심)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다도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회원들의 활동에 힘이 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됐다"는 신 회장은 "다도회 회원들이 불자로서 보시하는 마음,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를 보급하고, 불광사의 제목이 되어 포교와 화합으로 후배들에게 회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마하몰단체행사용품특별기획전

▮ 카드썬캡 1,800원(다량구매시 할인)

▮ 연꽃저금통 3,000원

▮ 동자저금통 5,000원

▮ 코끼리저금통 5,000원

▮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4,000원
▮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 20수 이중 라운드티
6,000원

▮ 여름불교학교현수막(실사) 높이 90cm
6m 60,000원 7m 70,000원
※기타사이즈 및 이미지 변경가능

▮ 풍경차걸이 4,000원

▮ 황금달마핸드폰걸이 15,000원

▮ 목탁핸드폰걸이 3,000원

▮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원

* 마하몰 T-셔츠 캐릭터 *

*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 나염비(1도당) 15,000원 추가
(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 최초 주문 수량50장
*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유기농 재배한 통불사 연향차

▮ 연향차(연꽃잎차)
~~38,000원~~ → 30,000원
연잎 100% , 40g

지리산 전통 수제녹차

▮ 불성차 (100g)
중작 35,000원
세작 50,000원
우전100,000원

※100장이상 사찰명 무료인쇄

▮ 다포(39x50)
기도포(39X80)
다포(백색) 900원
다포(회색) 1,300원
기도포(백색) 1,700원
기도포(회색) 1,900원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